

현대 일본문학과 식민지체험 1—〈만주체험〉을 중심으로—

이 정희(위덕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조교수)

〈要 旨〉

본 논문은 <현대일본문학과 식민지체험>이라는 커다란 연구과제 중 그 일부로서 만주체험에 대해서 고찰한 것이다. 만주체험을 고찰하기 위해 작가 아베 고보(安部公房)와 기요오카 다쿠유키(清岡卓行)의 만주체험을 살펴보았다. 이들 두 작가를 택한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두 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만주체험이 대조적인 현상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아베 고보는 만주체험 후 일본을 소거하기에 이르렀고, 기요오카는 그와는 반대로 1970년대에 들어서서 향수로서 만주를 회상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대조적인 현상을 살펴보고자 두 작가의 만주체험을 고찰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만주국은 1930년의 만주사변을 계기로 1931년에 건설된 일본 식민지국가로 이상과 기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만주개척 이주는 국가적인 목적으로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신천지라고 여겼던 만주국이 불과 13년 만에 붕괴하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만주국은 철저하게 일본이 가해자라는 사실과 함께 당시 그곳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풍토가 되고 말았다. 일본 패전으로 만주국의 붕괴는 이러한 이중성을 전면적으로 드러냈다. 일본인들은 만주의 주인이 중국인임을 알았고 지배자에서 전범자로 전락하는 경험을 맛보았다.

유소년기를 만주에서 보내 아베 고보와 기요오카는 그곳에서 만주의 붕괴와 일본의 패전을 맞이했다. 고향이라고 여겼던 만주는 일본 패전과 함께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게다가 패전 후 일본이 철저하게 가해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때부터 아베 고보는 고향이라든가 조국에 귀속하려는 문제보다는 오히려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일까'하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반면 기요오카의 만주체험은 낭만주의적인 회상이 짙어 일종의 향수문학의 성격이 짙다.

이렇듯 두 작가의 만주체험은 대조적이다. 아베 고보는 철저히 낭만주의를 배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인공들이 일본에 귀속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덕분에 일본적인 서정을 파는 작가가 아니라 보편성을 갖고 세계에 통하는 작가가 되었는데도 모른다. 이에 비해 기요오카는 1970년대에 들어서서 일본인으로 하여금 만주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하는데 한 몫을 담당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키워드 : 만주체험, 패전체험, 식민지체험, 고향, 일본어교육

1. 서론

현대 일본문학과 <식민지체험>에 관한 일본에서의 종래 연구는 오자키 호츠키(尾崎秀樹)의 『구식민지 문학연구(旧植民地文学の研究)』¹⁾를 제하면 거의 실적이 없었다. 일본에게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은 1945년 일본이 패전하면서 독립을 하게 되었고, 그밖에 아시아·아프리카에 있었던 식민지 국가들이 하나둘씩 독립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까지였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식민지시대에 태어난 문학을 연구하려고 들지 않았다. 1970년대에 들어가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식민지에서 벗어난 국가들은 이번에는 냉전체제의 구조 속에 들어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쪽도 식민지를 행했던 쪽도 <식

1) 尾崎秀樹 『旧植民地文学の研究』 勁草書房, 1971

민지체험>이 경시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일본문학사에 있어서도 그들의 <식민지체험>은 간과되어 있었다. 물론 일본에서 소위 <전시하의 문학>이라는 카테고리와는 별개로 일부러 가해자 입장에서 식민지문제를 끄집어 낼 필요성은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식민지인식은 1970년 이후 정치사나 경제사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고 보는데, 문학사에 있어서는 거의 전무하다. 게다가 일본에 있어서의 식민지연구는 <일본 근대의 초극>이라는 개념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일본문학에 있어서 <식민지>에 대한 문제는 주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학연구의 주제로서도 정착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 포스트콜로니얼 문학연구가 일본에 소개되자 서서히 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가와무라 미나토(川村湊)는 『「이향」의 쇼와문학(「異郷」の昭和文学)』²⁾과 『남태평양·사할린의 일본문학(南洋・樺太の日本文学)』³⁾등의 저서에서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를 비롯한 많은 일본의 근대문학 작가들의 식민지체험에 대해서 그들의 창작과의 관련을 추적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일본 식민지 여행견문록이나 작가가 중군기자로 활약하면서 쓴 것들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소설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것을 한국이나 중국 등의 입장에서 보면 <여행>이나 <개척>은 <침략>이고, 소위 <인양>은 <패전>에 지나지 않는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전은 주변 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는 승리였다는 점은 일본 근대·현대소설에서는 간과하기 쉬운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이러한 일본인 연구자들의 연구를 검토하면서 한국인이라는 타자적인 입장, 또는 피해자 입장을 살려 <현대 일본문학과 식민지체험>을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현대 일본문학과 식민지체험’이란 현대 일본문학 문학자들 중에서 어린 시절을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이나 만주 등에서 보낸 경험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작가들의 경험 시기를 한정짓는 것은, 어린 시절에 겪은 이국에서의 체험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이다. 만주국 건국 당시나 한국이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당시에 왕성히 작품활동을 한 작가들도 많다. 이들의 식민지 체험은 이번 논문에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게다가 특히 본 논문에서는 식민지체험 중 그 첫 번째로 <만주체험>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만주국은 1930년의 만주사변을 계기로 1931년에 건설된 일본 식민지 국가로 이상과 기만으로 가득 차있었다. 식민지 지배를 위해 일부러 청조의 마지막 황제 부의(溥儀)를 황제로 옹립하는 기묘한 의식이 행해졌다. 이것에 수반되어 정치·경제·군사 등 각 방면에 걸쳐 각종 신화적인 슬로건이 생겨났다. <왕도락토(王道樂土)> <오족협화(五族協和)> <일본의 생명선>이라는 슬로건 아래 식민지 국가 건설에 환상을 키워나갔다. 이 신화의 실현에 노력한 사람들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만주개척 의용군이라는 이름 하에 농촌에 있는 청년들이 농업개발을 위해 이주해갔다. 만주국 군인에 편입된 일본국군은 일본계 관군으로 소속되었으며, 만주에 거주한 일본인은 일본국민인 동시에 만주국민이었다.

그 당시 일본에게 있어서 만주는 가장 가까운 외국이었다. 만주개척 이주는 국가적인 목적으로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신천지라고 여겼던 만주국이 불과 15년 만에 붕괴하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1945년 일본 패전, 만주는 철저하게 일본이 가해자라는 사실과 함께 당시 그곳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풍토가 되고 말았다. 만주국의 붕괴는 이러한 이중성을 전면적으

2) 川村湊 『「異郷」の昭和文学』岩波書店, 1990

3) 川村湊 『南洋・樺太の日本文学』筑摩書房, 1994

로 드러났다. 일본인들은 만주의 주인이 중국인임을 알았고 지배자에서 전범자로 전락하는 경험을 맛보았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많은 일본인은 <인양=귀국>이라는 것에 희망을 앓고 살아남았다. 그 후 그 희망은 아메리카의 원조로 실현되었다.

문학 작품에서 기대되는 것은 그 시대의 정치적 영향력이 아니라 시대를 살아가는 힘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위 <외지인양파(外地引揚派)>라고 불리는 작가들의 작품은 시대를 살아낸 살아있는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지인양파>라는 것은 대부분은 유소년기에서부터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소위 <외지(外地)=일본 식민지 지역>에서 지냈고 1945년 일본 패전과 함께 <내지(内地)=일본>로 인양한 작가들을 일컫는다. 그들은 일본의 패전과 더불어 일본이 철저히 가해자였다는 것을 알았다. 어린 시절을 한국이나 만주에서 보낸 이들은 당시 이데올로기처럼 내세웠던 각종 신화적 슬로건을 온전히 믿으면서 자랐다고 했다.

그러나 패전과 더불어 일본으로 인양해 오자 그들은 <외지인양파>라 하여 일본의 문화적 전통과 괴리를 느끼게 되었다. 그들의 식민지 문화에 대한 시선은 일차적으로 <외지>로 여행을 한 일본인들과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외지>에서 역시 조국인 일본식 교육을 받았으며 식민지 지배 민족으로 살아간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지배를 받았던 한국이나 만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인들이 말하는 <내지>나 <외지>라는 구별 이전에 그들 전체가 일본인이라고 불렸던 존재였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 외지인양파들은 일본 내에서 어떤 때에는 일본의 외부 사람으로서, 어떤 때에는 일본의 내부 사람으로서 살아왔던 것도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외지인양파>를 중심으로 그들의 식민지체험이 그들 작품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일본에서 <외지인양파>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작가를 예로 들면 아베 고보(安部公房 1924~1993), 기요오카 다쿠유키(清岡卓行, 1922~), 히노 계조(日野啓三, 1929~), 이츠키 히로유키(五木寛之, 1932~), 야마자키 마사카즈(山崎正和, 1934~), 고토 메이세이(後藤明生, 1935~), 미키 다쿠(三木卓, 1935~), 베츠야쿠 미노루(別役実, 1937~) 등이다.

이 중 아베 고보와 기요오카 다쿠유키·미키 다쿠·베츠야쿠 미노루는 만주에서 유년시절을 보냈으며, 히노 계조는 서울에서, 또 이츠키 히로유키는 평양에서 유소년기를 보냈으며, 고토 메이세이는 함경남도 출생이다. 이들 외에도 <외지인양파>라 불리는 작가들은 많다. 작가뿐만이 아니라 화가, 연극인, 영화인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⁴⁾

본고에서는 필자가 오랫동안 아베 고보를 연구해온 결과로 해서 아베 고보와 기요오카 다쿠유키의 만주체험을 고찰하고자 한다. 만주체험 고찰에 있어서 이 두 작가를 선택한 이유는 만주에 대한 체험이 작품 속에 대조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아베 고보는 만주 멸망 후 그 원인인 일본을 작품을 통해서 없애려했던 반면에 기요오카 다쿠유키

4) 이밖에도 대표적인 작가로는 五味川純平(1916~, 대련출생, 대표작 『인간의 조건(人間の条件)』), 沢地久枝(1930~, 도쿄출생 4세 때 滿州로 건너감), 天沢退二郎(1936~, 도쿄출생 3세 때 장춘으로 건너감), 遠藤周作(1923~1997, 3세부터10세까지 대련에서 지냄), 生島治郎(1933~, 상해(上海)출생), 植谷雄高(1909~, 타이완 출생), 橋田寿賀子(1925~, 서울출생), 森崎和江(1927~, 대구 출생), 齋藤憐(1940~, 평양 출생). 화가로는 池田満寿夫(1934~, 봉천 출생), 赤塚不二男(북경 출생, 봉천에서 자람), 富山妙子(고베출생, 대련에서 자람)를 들 수 있다. 대표적인 가수로는 有馬稲子(오사카출생, 4세 때 부산에 음), 小林千登勢(1937~, 서울출생, 신의주에서 자람), 長山藍子(몽고출생, 장춘에서 자람), 宝田明(청진출생, 하얼빈에서 자람), 유명한 성악가(소프라노) 中沢桂(1932~, 하얼빈출생, 장춘에서 자람), 연주가 小沢征爾(봉천출생) 등을 들 수 있다.

기는 조국 일본의 입장에 서서 만주를 그리워하며 회상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두 작가의 만주체험을 고찰하여 그 대조적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만주체험은 <한국체험>과는 달리 어떤 의미에서는 낭만주의에 편승하여 만주를 그리워한다거나 패로디적인 수법으로 그 시절은 회상한다거나 하는 성격이 진하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만주는 전쟁과 무관하게 취급하였다. 그러나 만주는 남경(南京)대학살 사건과 진주만 공격과 같은 차원에서 논해야만 할 것이고 게다가 낭만주의 색채는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의 일본 현대문학과 만주체험 연구는 문학자뿐만 아니라 수백만명 이상이 존재했다고 하는 일본 전후 인양자들의 식민지 인식, 나아가 전후 일본문학을 재조명하는 시점을 새롭게 제시할 수 있으리라 보는 바이다.

본고에서 원래 <만주>를 <중국 동북부 지역>이라고 하는 게 당연하지만 편의상 <만주>라고 하기로 한다.

2. 아베 고보(安部公房)와 <만주체험>

아베 고보는 1925년 2살 되던 해 아버지가 있는 만주 심양(瀋陽, 당시 이름은 奉天)시로 이주해 갔다. 아베 고보는 유년기를 비롯하여 초등학교·중학교를 만주에서 보냈다. 1940년 중학교를 졸업하고 도쿄에 있는 세이조고등학교(成城高等學校)에 입학, 1943년에는 도쿄대학 의학부에 진학을 한다. 전쟁은 나날이 악화되고, 이에 따라 정신마저 황폐해져서 2년 동안 거의 학교를 안 다녔다고 한다. 1944년 겨울 일본이 패전할 거라는 소문이 나돌자, 건강진단서를 위조하여 휴학을 하고 만주로 돌아갔다.⁵⁾ 이렇게 일부러 위험을 무릅 쓰고 만주로 돌아간 것은 만주가 자신의 고향이라는 의식이 강했기 때문일 것이다.

만주로 돌아간 아베 고보는 그곳에서 패전을 맞이했다. 비교적 평온했던 만주는 1945년 8월 9일 느닷없는 소련군의 침공으로 사태는 격변했다. 일본군은 조선을 지켜야 한다는 명목으로 끝까지 싸움도 하지 않은 채 하루 사이에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일본군은 만주에 남아 있는 일반 일본인들을 그냥 버린 셈이다. 소련군은 열흘만에 만주 전역을 제압하고 만다.

만주는 의외로 평온했고 조금도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뭔가 안정되지 않는 마음으로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하루 하루를 그냥 보냈다. (중략) 8월이 되자 갑자기 전쟁이 끝났다. 문득 세상이 빛으로 가득 차 모든 가능성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이 느껴졌다. 그러나 이어서 가혹한 무정부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무정부 상태는 불안과 공포를 가져다 준 반면 내게 하나의 꿈을 심어 준 것도 사실이다. 아버지와 아버지로 대표되는 재산과 의무로부터 해방. 계급과 인종차별의 붕괴……(오족협화(五族協和)라는 거짓 슬로건을 나는 진심으로 믿었으며, 그것을 짓밟아 가는 일본인의 행동에 강한 증오와 환멸을 느꼈다) 그 해 겨울 발진티브스가 유행하고 진료에 과로한 아버지는 감염되어 사망했다.⁶⁾

아베 고보는 소련 점령군에 의해 집에서 쫓겨나 봉천 시내를 전전하며 돌아다녔다. 동생 순코(春光)와 사이다를 제조해서 팔아 일가 생계를 유지했다. 게다가 휴대용 고체 사이다를 연구해서 팔았는데 실패를 했다. 당시 발명에 몰두해서 섬유소를 당으로 분해하는 꿈까지

5) 만주로 돌아가는 길에 북한을 경유해서 갔는데 그 때 북한에 대한 인상을 후에 회곡 『체복(制服)』(1954)에 담았다.

6) 『新鋭文学叢書 安部公房集』筑摩書房、1960、「自筆年譜」による。

꾸었다고 한다. 이때 아베 고보는 “무정부 상태는 불안과 공포를 가져다 준 반면 내게 하나의 꿈을 심어준 것도 사실이다” 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이란 무엇일까.

아베 고보는 먼저 아버지에 대한 의무나 부담에서 해방되었다고 했다. 이것은 아버지 아사키즈(淺吉)일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로 대표되는 것으로 조국 일본을 상징한다고 고도 볼 수 있다. 이제 일본이 패함으로서 그 어디에도 소속되기를 강요받지 않을 거라는 의미일 것이다. 이제 자신은 국가나 민족, 그 어느 것에도 귀속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감돌았을 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아베 고보에게 있어서 만주체험 내지 패전체험은 국가라든가 고향이라든가 하는 것의 귀속문제보다는, 오히려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일까’ 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으며, 이것을 작품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했을 것이다. 만주국의 슬로건인 오족협화(五族協和)와 왕도락토(王道樂土)를 아베 고보는 어렸을 때부터 믿으며 자랐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한꺼번에 깨지는 순간이었다. 일상적인 것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이다. 게다가 일본이 철저히 가해자임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모든 가치가 뒤바뀌는 상황을 체험한 아베 고보는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작가의 길을 택한 것이다.

아베 고보가 일본으로 귀국한 것은 1946년 12월이었다. 대련(大連)에서 인양선을 타고 일본 나가사키(長崎) 사세보(佐世保) 항에 도착했으나, 인양선 안에서 콜레라가 발생하여 10일 정도 사세보 인양 보호국에 계류되었다. 그 후 그곳에서 풀려나 각자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한다.⁷⁾

이러한 인양 당시의 체험은 10년이 지나 『짐승들은 고향을 향한다』(1957)의 배경이 되었다. 『짐승들은 고향을 향한다』는 만주 서북부에 있는 파하린(巴哈林)이라는 마을에서 일본 패전으로 인해 고아가 된 한 소년이 혼자서 만주를 종단하여 한번도 가 본적이 없는 조국 일본을 향해 간다는 이야기이다.

일본에서는 일종의 모험소설로 보는 경향도 있지만, 모험소설로 보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는 일본 패전으로 인해 만주국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상황, 당시 만주국에 몰려든 정치권력 모습들이 리얼하게 그려져 있다. 게다가 만주국 멸망과 일본 패전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작가의 시점이 잘 드러나 있다.

말 할 필요도 없이 거기에는 작가성(作家性)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인양 소설>로서 모험소설과 비교해 봐도 결국 색다른 독립한 작가성을 엿볼 수가 있다. 아베 고보는 다른 만주체험을 지닌 작가와 독특한 점을 지니고 있지만 일본 문학사에 있어서 그 위치를 아직도 제대로 자리 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2.1 작품 속에 나타난 만주체험

— 『길 끝난 곳의 이정표에』와 『짐승들은 고향을 향한다』를 중심으로—

아베 고보는 자신의 만주체험·패전체험을 소설로 그리려하지 않았다. 그의 많은 작품 중에서 만주체험·패전체험을 토대로 해서 리얼리티가 있는 소설로 완성한 것은 처녀작인 『길 끝난 곳의 이정표에』(終りし道の標べに, 1948)와 『짐승들은 고향을 향한다』(けものたちは故郷をめざす, 1957) 정도이다.

1948년 10월, 아베 고보는 『길 끝난 곳의 이정표에』로 문단에 데뷔했다. 당시 아직 도쿄

7) 1945년 패전이후 만주에서 인양한 사람 수는 1946년까지 100만명을 넘었으며 1949년까지 인양은 계속 되었다. 그러다가 1949년 이후는 만주에서 인양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若槻泰雄『戦後引揚げの記録』時事通信社、1995)

대학 의학부에 재직하고 있던 아베 고보는 『길 끝난 곳의 이정표에』를 처녀작으로서 작가로서 출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길 끝난 곳의 이정표에』의 주인공은 일본의 떠나서 만주로 향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이 작품은 3권의 노트와 13장의 추록(追錄)으로 되어 있다. 주인공 <나>(다른 사람들은 T라고 부른다)는 20년전 고향인 일본을 떠나, 지금은 결핵환자인 동시에 아편중독자로 만주의 한 변경에 있는 마을에서 비적(匪賊)들에게 잡혀있는 몸이다

<제1노트>에는 현재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쓰여져 있다. 즉, 주인공은 금현(錦縣)의 황(房) 8이라는 소자본가가 경영하는 사이다 제조공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다. 그런데 3개월 전에 황(房)씨의 딸과 약혼자 고(高)씨와 일하는 사람 두사람을 데리고 친척집에 가는 도중 비적에게 잡히고 말았다. 그 비적의 우두머리는 진(陳)이라는 사람과 이(李)씨 형제였다. 비적에게 잡혔을 때 고(高)는 우두머리인 진(陳)에게 <나>를 이야기하기를 중대한 비밀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진(陳)과 이(李)씨 형제는 <나>에게 그 중대한 비밀을 캐내려고 특별 취급을 해주었다. <나>는 그 비밀이 사이다제조법이라 생각하고 얼른 알려주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비밀이 있을 거라며 묻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에게는 비밀스러운 비밀 같은 것은 없었다. 비밀이 있다고 한다면 「길 끝난 곳의 이정표에」라는 유서와도 같은 노트를 쓰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이 노트에는 <나>의 긴 방랑이 이 만주에서 끝이 날 것이며, 그리고 이 방랑은 <존재의 고향>을 찾아 떠난 것이라는 따위가 쓰여져 있었다.

<제2노트>에는 방랑을 길을 떠나게 된 20년 전의 사건에 대해 쓰여져 있다. 즉 친구와의 삼각관계이야기다. 그러나 <나>는 일본을 뒤로하고 일본을 떠나게 된 이유는 실연 때문이 아니라 <존재의 고향>을 찾기 위해서였다.

<제3노트> 및 <기록>에는 <나>의 비밀이라는 것이 노트에 쓰여진 기록이라는 것을 안 진(陳)은 돌변하여 <나>를 고(高)와 함께 감금해 버린다. <나>는 그곳에서 고(高)와 친해지게 되고 고(高)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고(高)는 팔로군⁹⁾의 장교로 비밀공작을 위해 황(房)씨 집으로 들어갔다가 딸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게다가 여동생에게도 반해 오랫동안 머물게 된 것이라고 했다. 삼각관계라는 점에서 <나>는 공통점이 있다고 느끼지만 고(高)는 결국 고향에서 정착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하고, 고향을 멀리한 자신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결국 고(高)는 탈출을 하고 화가나 비적은 마을 습격하였고, <나>는 자살을 결심하고 치사량 이상의 아편을 마신다.

즉 『길 끝난 곳의 이정표에』는 3권의 노트와 13장의 추록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자신, 그리고 현재의 자신을 이야기하며, 만주로의 여행의 의미에 대해서 자문하고 있다. 왜 고향인 일본을 떠나왔을까, 무엇을 찾아서 만주로 떠난 것일까. 그리고 그 만주로 향한 여정 끝에는 무엇이 남겨져 있을까 등이다. 이러한 작품 속의 <나>의 물음에는 작가 아베 고보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었다고 해도 좋은 것이다. 게다가 13장의 추록에는 <진(陳)>이라는 등장인물에 자신과 만주국, 관동군, 팔로군, 국민당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일본 패전을 축으로 해서 전후 상황이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길 끝난 곳의 이정표에』에서는 구체적으로 만주라고 하는 장소를 빌어 만주체협을 그리려고 했다고는 오히려 <고향>에 대한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아베 고보는 여기에서 <생의 고향(生の故郷)>과 <존재의 고향(存在の故郷)>으로 고향을

8) 본문에 ‘황’이라는 음의 표기가 나와 있어서 황이라고 함.

9) 八路軍, 중국공산당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고 있다. <생의 고향>은 우리들이 태어난 고향이고, <존재의 고향>은 소위 우리들을 현재 지금 여기에 있게 한 곳이라는 것이다. 아마도 아베 고보는 이러한 두 고향을 일본과 만주로 대비시켜 생각했을 것이다. 일본에서 태어났으므로 <생의 고향>은 일본이라 할 수 있으며 현재 자신을 이곳에 있게 한 <존재의 고향>은 만주인 셈이다. 그러나 정작 아베 고보는 자신에 대해서 “나는 도쿄에서 태어나 만주에서 자랐다. 그러나 원적은 홋카이도이고 그곳에서도 몇 년간 생활한 경험이 있다. 즉 출생지, 출신지, 원적 세 곳이 모두 다르다.” 라고 말하고, 본질적으로 고향이 갖지 못하는 인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일종의 <생의 고향>에 대한 증오라고 할 수 있으며, 아베 고보류로 말하면 정착에 가치를 부여하는 모든 것의 부정이라고 할 수 있다.¹⁰⁾

이와 같은 고향 증오는 아베 고보만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다. 예를들어 『사령(死靈)』으로 유명한 하니야 유타카(埴谷雄高)도 고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내 고향에서 자랐다면 이 대지에 의해서 일본적인 감각, 일본적인 미 속에서 자랐겠지만, 나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자랐기 때문에 일본 전체가 비판 할 만한 삶은 존재로서 점점 새겨지게 되고 말았다. 일본적인 것에 대한 원시적인 혐오가 그 때(어린 시절—인용자 주) 뿌리깊게 내리고 말았다.¹¹⁾”

하니야 유타카는 일본 후쿠시마(福島)현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타이완제당(台灣精糖)에 있었기 때문에 유소년시대를 타이완 각지를 전전하며 자랐다. 이때부터 지배자인 일본인에 대한 반감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한다. 아마 이러한 감정은 일본 식민지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감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길 끝난 곳의 이정표에』에서는 고향에 대한 작가의 관념이 잘 나타나 있는 반면, 약 9년 뒤에 발표한 『짐승들은 고향을 향한다』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만주체험을 그리고 있다. 『짐승들은 고향을 향한다』는 주인공 구키와 동행인 고(高) 두 사람이 만주의 황야를 지나 일본으로 향하는 여정을 그린 이야기라고 해도 좋다. 구키는 만주에서 태어났지만 엄마가 일본인이며, 만주 멸망 당시에는 부모를 모두 잃은 상태다. 고(高)는 중국인으로 엄마가 일본인이다. 『짐승들은 고향을 향한다』는 고아가 된 구키는 어떻게 해서든지 조국이라고 생각하는 일본으로 향하려는 와중에 고(高)를 만나 함께 일본으로 간다는 내용이다.

『짐승들은 고향을 향한다』는 만주국의 붕괴와 소련군의 점령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주인공 구키는 소련군 숙소에서 잡역을 담당하는 소년으로 소련 장교 알렉산드로프 밑에서 평화와 신변의 보호를 받으면서 2년 반동안 비교적 안정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곳으로부터 탈출을 기도한 것이다. 사실 탈출이라는 것은 생명에 위협까지 느낄 정도로 위험한 모험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출을 시도한 것은 어쩌면 구키의 마음 속에 잠자고 있었던 <짐승>이 눈을 뜬 것은 아닐까. <짐승>들은 항상 속박을 싫어하며 자유를 갈구한다고 하겠다. 전쟁이라고 하는 속박, 또는 안정이라고 하는 속박 등으로부터 구키는 내부에 잠자고 있었던 <짐승>의 본능에 의해 황야로 뛰쳐나갔다고 할 수 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돌아가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본능이라는 것이다.¹²⁾” 라고 소련의 쿠마중위가 말하는 장면이 있다. 구키에게 있어서 ‘돌아갈 곳’이란 즉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일본인 것이다. 이 일본으로 향하기 위해 남행열차를 무사히

10) 정착에 가치를 부여하는 모든 것이란 아베 문학에서 찾아본다면 고향을 비롯하여 『벽—S·카르마씨의 범죄(壁—S・カルマ氏の犯罪)』의 <이름>이나 『타인의 얼굴他人の顔』의 <얼굴>을 들 수 있다.

11) 対談「文学創造の秘密—埴谷雄高にきく—」

12) 「けものたちは故郷をめざす」(『安部公房全集6』新潮社、1998) p.306

타게된 구키는 열차 안에서 고세키토(高石塔)이라는 중국인을 만나 함께 일본으로 향하게 된다. 소위 구키와 같은 처지에 처해 있던 사람이었다.

둘은 남쪽으로 향하는 힘든 여행을 계속하였다. 구키는 아직 한번도 가 본적이 없는 일본을 ‘누구든지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상상한다. 봉천에 도착한 두 사람은 서로 헤어진다. 구키는 고(高)가 알려준 대로 공원 분수대에 있는 큰 구멍 속에 몸을 피한다. 구키는 오랫동안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렸던 터라 이 대도시 봉천이 천국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동시에 일본이 패전한 지금은 이 도시가 구키에게는 이방인 거리처럼 낯설게 느껴졌고 완전한 이국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구키의 생명을 위협하는 곳이기도 했다. 구키는 공원에서 한 소년을 만났다. 그 소년의 도움으로 일본인이 거주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 그런데 구키는 일본인 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구키는 인간사회 그것도 이번에는 같은 일본인 사회로부터 소외당한다. 황야에서도 고독했지만 마을에서는 한층 더 고독을 느끼게 되었다. 게다가 구키는 지금까지 황야를 함께 빠져나온 고(高)에게서 배반당했음을 느낀다. 절망에 흐느적거리며 마을 배회할 때 구키는 일본인인 오가네 야스오(大兼保雄)를 만났다. 그는 밀무역 부로커였다. 구키는 그 남자의 도움으로 일본을 왕래하는 밀무역선에서 일하게 되었다. 구키는 배 안에서 봉천에서 헤어진 고(高)를 만났다. 고(高)는 배 안에서 구키라는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었으며 마약중독 증세로 이미 미쳐있었다. 배는 일본 항구에 도착했지만 밀무역의 비밀을 알아버린 구키는 선실에 갇혀버리고 만다. 고생 끝에 일본에 도착하지만 갑판 한 장 사이에 있는 일본 땅에는 상륙하지 못하고 마는 데에서 이야기는 마친다.

이상과 같이 『짐승들은 고향을 향한다』는 패전 후 만주 지역에서 부모를 잃고 국가로부터의 보호를 받지 못한 한 소년이 고국인 일본으로 귀국하려고 하나 일본을 눈앞에 두고 상륙을 거부당하는 고난의 이야기이다.

소련군 밑에서 일하고 있던 구키는 왜 일본으로 돌아가야만 하는지 명확하게 자각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무엇이 그를 충동질했다. “밤이 되면 혼자 남겨진 듯한 초조함으로 꿈을 꾸게 된다. 벌레가 되어 지도 위를 방황하는 꿈이나 기차표도 없이 목적지도 없는 기차를 타는 꿈을 꾸다” 고 아베 고보는 구키의 내면을 그리고 있다. 혹독한 겨울 추위 속 황야를 가로질러 일본으로 향하는 구키의 행동은 귀향본능에서 오는 충동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결국 이러한 구키의 귀향본능 행위가 만주의 불안정하고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부정되어 가는 과정에서 남은 것이라고는 좌절과 절망뿐이었다. 게다가 구키와 동행하는 고(高)는 엄마는 일본인, 할아버지는 조선인인 중국인으로 등장하는데, 일본을 고향으로 여기고 일본을 향할 필요는 엄밀히 말해서 없다. 물론 그의 가족을 보면 모두 일종의 고향상실자들이라고는 말할 수 있다.

이밖에도 아베 고보는 자신의 만주체험을 간접적으로 많은 작품에 그리고 있다. 예들들어 1951년에 발표한 『벽-S·카르마씨의 범죄(壁-S·カルマ氏の犯罪)』를 살펴보자. 이 작품은 이름을 잃어버린 인물을 등장시키는 등 황당무계한 발상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아베 고보는 이 작품으로 그 다음해 제25회 아쿠타가와(芥川)상을 수상하면서 주목을 받았으며, 그 후 점점 새로운 작품세계를 구축하여 갔다. 『벽-S·카르마씨의 범죄』는 이름을 잃어버린 주인공이 결국은 현실사회에서 소외되어 황야에서 <벽>으로 변해버린다는 이야기이다. 이 작품에도 의심할 여지없이 만주체험이 새겨져있다.

우선 첫째 이름을 잃어버렸다는 설정을 보기로 하자. 이름은 호적을 비롯하여 각종 서류에 자신을 등록하는데 필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름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민

족이나 국가 등의 공동체 귀속을 포기하는 것으로 아이덴티티의 상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베 고보의 <만주=고향> 상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려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벽>으로의 변신 의미다. <나>는 황야에서 성장하는 벽으로 변신하다. 여기에서 벽이 갖는 이미지는 도시의 발달과 인간 소외라고 하겠다. 만주 허허벌판에 만주국이 들어서면서 대지에는 땅속에서 불쑥불쑥 솟아오르듯이 건물이 들어섰다. 드디어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만주국이 세워졌다. 이러한 이미지는 만주를 방문한 사람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이미지라 하겠다.¹³⁾ 게다가 벽은 일본인 거주공간과 이민족 거주공간을 구분 짓는 문화의 경계선이기도 했다. 아베 고보는 만주에서 거주공간의 벽을 넘나들며 이문화(異文化) 체험을 하였으며 동질성과 이질성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만주체험은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이미지로 나타나 있으며, 아베 고보가 작품 속의 공간을 주로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나, 등장인물들의 출신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여기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2.2 아베 고보 문학의 원풍경

아베 고보 문학은 <고향>을 찾는 시도에서부터는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길 끝난 곳의 이정표에』에서는 고향인 만주를 향한 여정을 그렸다고 볼 수 있으며, 『짐승들은 고향을 향한다』는 태어난 고향인 만주를 떠나 조국이라고 생각하는 일본으로 향한 고난을 그렸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아베 고보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는 만주국에서의 체험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작품에 담았다. 초기에 보여지는 장편소설에서는 고립된 상황 속에서 고향을 찾는 본능적인 행위가 주를 이루지만, 중기이후의 장편소설을 보면 그러한 고립된 상황 속에서 내면적인 자유를 찾으려는 갈등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상자인간』(箱男, 1973)은 <상자인간>이라는 설정 통해서 인간 내면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려 했다. 현실세계에서 소외되어 밀폐된 공간에서 인간 재생을 가능성을 모색하려 했다. 게다가 아베 고보에게 있어서 가장 잘 알려진 작품으로 꼽는 『모래의 여자』(砂の女, 1962) 역시 만주국에서의 체험이 반영된 설정이라 하겠다. 아베 고보는 만주국에서 자신의 집에서 한 발짝만 나가면 중국인, 조선인인 이민족들과 접했으며, 그리고 만주의 황야와 사막지대가 끝없이 펼쳐졌다. 이러한 세계 속에 내던져버린 존재,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모래의 여자』에서 그리려 했던 것이다. 물론 『모래의 여자』는 모래 웅덩이에 갇힌 인간의 모습을 그리는데 초점을 둔 것은 아니다. 주인공은 처음에는 모래 웅덩이에 갇히게 되어 도망칠 수 없어 절망하게 되지만, 수차례 시도 끝에 모래 속에서 물을 얻을 수 있는 저수장치를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한다. 그러자 그토록 갈망했던 탈출이 의미를 잃게 된다. 주인공은 모래의 세계에서 삶의 가능성을 찾아내고는 안도감에 젖는다. 다시 말해서 죽음의 세계에서 부활을 발견해내는 그러한 모습이 작품에 나타나 있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세계에서의 고립에서부터 재생이라고 하는 테마가 실감나게 와 닿는 것은 아베 고보의 생생하고도 처절한 만주체험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만주는 이 거대한 고립과 고독감, 소외감을 만들어낸 원풍경이며 인간 존재에 대한 반성의 자료이기도 했다. 아베 고보는 이 만주에서 철저히 낭만주의를 배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인이 철저히 가해자라고 느꼈다. 이는 결국 무언가에 귀속시키는 것을 용납할 수 없게 하였다. 덕분에

13) 필자는 <현대일본문학과 식민지체험>연구의 일환으로 2001년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옛만주 지역인 중국동북부지역인 대련(大連), 심양(瀋陽), 장춘(長春), 하얼빈을 탐방하였다.

에 일본적인 서정을 띄는 작가가 아니라 보편성을 갖고 세계에 통하는 작가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아베 고보는 “할아버지는 홋카이도 개척민이었다. 아버지는 장남인 데에도 부모 곁을 떠나 만주의과대학에서 공부하여 그곳에서 의사가 되었다. 나에게도 개척자의 피가 흐르고 있다” 고 말하며, 이러한 자신의 성장환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원적과 출생지, 성장 한 곳이 모두 달라서 나는 점점 내 과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게 되었다. 예를 들어 한마디로 출신지를 물어보면 무어라고 대답하면 좋을지 몰랐다. 아마 이런 경력이 나를 사소설(私小説)적인 발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는지도 모른다.¹⁴⁾

이렇듯 아베 고보는 일본 근대문학의 한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사소설을 정면으로 단절하려 하였다. 이는 일본 현대문학의 가능성을 제시했다고도 할 수 있다. 만약 아베 고보가 어린 시절을 만주에서 보낸 경험이 없거나,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을 떠난 적이 없이 생활한 작가라면 지금의 작가 아베 고보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베 고보에게 있어서 만주체험은 작가 아베 고보를 존재하게끔 했으며, 게다가 만주체험을 회상문학이나 향수문학에 그치지 일본을 객관적으로 보려했다. 아니, 극단적으로 말해서 아베 고보는 그의 작품 속에서 일본을 지워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 기요오카 다쿠유키(清岡卓行)와 <만주체험>

기요오카는 1922년 만주 대련(大連)에서 태어났다. 그곳의 아사히초등학교(朝日小学校)에서부터 대련제일중학교(大連第一中學校)를 나와 여순고등학교(旅順高等學校)에 다니다가 도쿄의 일고(一高)에 입학했다.

기요오카의 작품 중에 만주체험을 그린 것으로 유명한 『아카시아의 대련』(アカシアの大連, 1969년 12월)이 있다. 이 작품은 1970년 제 62회 아쿠타가와(芥川)상을 수상하였다. 당시 나카무라 미츠오(中村光夫)씨는 다음과 평가하였다. “작가가 자신이 쓰고 싶은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온 힘을 다해 표현하려고 했다. 이러한 자신감과 노력이 독자에게 일종의 쾌감처럼 전달된다. 이것은 모든 문학작품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성격이지만, 오늘날 소설을 보면 직업적으로 기교에 너무 치우쳐 버려 이것을 잃어버리기 쉽다고 하겠다.” 이 평가는 『아카시아의 대련』을 가장 잘 말해 주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아카시아의 대련』이 어떠한 성격의 작품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해준다.

일본인은 이 작품을 계기로 일본 패전으로부터 20여년이 지나서야 다시 한번 기억 속에 완전히 매몰되어 버렸던 만주의 대련을 회상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후 일본은 일본군부가 건설한 만주국을 일본 패전과 함께 영원히 소멸된 풍토로 여기고 고의로 망각해 버리려고 했다.

기요오카의 『아카시아의 대련』은 일본인들의 만주체험, 즉 대륙인 만주를 고향으로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묻혀 있던, 이미 잿더미가 되어 사라져 버렸다고 생각한 그 풍경을 젊은 날의 초상처럼 회상하게 한 것이다.

기요오카는 죽은 아내와 만났던 대련을 회상하면서 아내가 죽었어도 계속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되었던 자신을 삶을 그리고 있다.

14) 『新鋭文学叢書 安部公房集』 筑摩書房、1960、「自筆年譜」による。

옛 일본 식민지 지역 중에서 아마 가장 아름다웠던 도시임에 틀림이 없는 대련을 다시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물어보면, 그는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 것이다. 가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다. 가보는 것이 불안한 것이다. 만약 다시 한번 그 그리운 거리에 놓여지게 되면 제대로 걸음조차 걸을 수 없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¹⁵⁾

위 인용문은 『아카시아의 대련』의 머리부분이다. 이것은 패전 당시의 비참함과 혼란은 느낄 수 없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처럼 회상하는 과정을 읽을 수 있다. 시간이 모든 악덕과 만행을 씻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그 풍경은 사람들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름다운 추억으로 자리잡게 되고 말았다. 일본 문학에서는 패전 후 20여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예전에 존재했던 만주를 환영처럼 그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부분에서 기요오카의 심경을 잘 읽어낼 수 가 있다. 즉 대련을 고향으로서 그리워하는 심정이다. 대련을 고향으로 그리워하는 마음은 비단 기요오카 뿐만이 아니다. 대련은 러일전쟁(1905년) 이후 일본의 조계지(租界地)로 일본에서 본다면 가장 서양다운 도시였다. 처음 러시아에 의해 건설되어 지극히 일본적이지 않은 도시 대련에서 일본의 쇼와문학(昭和文学)의 <새로운 물결>이 일었던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만주에 이주해 문학활동을 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련에서 일어난 모더니즘운동이다. 안자이 후유에(安西冬衛)¹⁶⁾, 기타카와 후유히코(北川冬彦)¹⁷⁾ 등의 시인과 프로레타리아 문학운동이나 좌익활동의 탄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만주에 모여든 사람들이 중심을 이루었다. 이들은 식민지 도시 대련을 <침략>으로서가 아니라 <모더니즘과 향수의 도시>¹⁸⁾로 대련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곳은 그가 태어나고 유소년시절을 보낸 곳이다. 아니 그 뿐만이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앞으로 5개월만 지나면 끝날 것이라고 하던 때에, 도쿄의 한 대학교 1학년이었던 그가 참을 수 없는 향수에 젖어 병에 걸릴 것도 아닌데 휴학을 하고 되돌아 온, 그리운 집이 있던 거리. 그리고 드디어 조국의 패전을 체험하고, 그 후로 3년이나 그곳에서 어영부영하면서 머무르다가 생각지도 않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던 곳이다.¹⁹⁾

『아카시아의 대련』은 회상이라고 하는 수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를 과거로서 현재로부터 떨어뜨려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역으로 조명해 보려는 방식으로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 위 인용문은 <그>의 경력을 알 수 있는 곳이다. 대련에서 태어난 <그>가 대학 진학을 위해 도쿄에 갔다가 패전 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자기 집이 있는 대련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결혼까지 하게 된 경위를 이야기하고 있다.

15) 清岡卓行 『アカシヤ大連』(『昭和文學全集 30卷』小學館、1988) p.7

16) 안자이 후유에(安西冬衛, 1898~1965) 나라(奈良)출생. 1920년 대련으로 건너감. 1924년 대련에 있던 시인 4명(안자이도 포함)이 잡지 『아(亜)』를 발행하여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문학운동이 일기 시작했다. 이들의 시는 대련이라고 하는 러시아가 세운 서양의 도시 풍토 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즉 다시 말해서 만주라고 하는 풍토에서 창출된 문학인 것이다. 이들에 대한 평가는 동시대의 시에서 볼 수 없는 수법과 전위성에 의해 일본 근대시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고 한다.

17) 기타카와 후유히코(北川冬彦, 1900~1990) 시가현(滋賀県) 출생. 1907년 대련으로 건너감. 안자이 후유에와 함께 활동.(주16) 참조.

18) 「清岡卓行の大連」(『清岡卓行大連小説全集 上』月報、1992

19) 清岡卓行 『アカシヤ大連』(『昭和文學全集 30卷』小學館、1988) p.7

그는 아카시아 꽃이 그의 내면 세계에 훨씬 이전부터 상징적으로 자리잡고 있었던 것은 그녀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거기에는 그녀도 또는 자신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옛 식민지 대련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 그리고 많은 일본인들이 그곳을 떠난 뒤에도 거기에서 생활을 사랑한 것처럼 보이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²⁰⁾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카시아의 대련』은 이미 잃어버린 것에 대해 애석하는 마음과 한 여성의 모습을 같은 선상에 두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 진한 대련에 대한 동경이 있다고 하겠다. 『아카시아의 대련』에 그려진 고향 대련은 작품 전체를 뒤덮은 소재이면서도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 비로소 <그>의 기억 맨 밑에 자리잡고 있었던 것을 끄집어 올렸던 것이다. 이는 <그>에게 대련은 잊고 있었던 고향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렇듯 대련이 일본 전후문학에 회생을 한 것이다. 식민지 도시라는 것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모더니즘이 꽃피우던 향수의 도시로서 그린 것이다.

이러한 대련의 긍정적인 이미지에 대해서 불만을 표명한 것은 가와무라 미나토 『「이향」의 쇼와문학』²¹⁾이다. 가와무라씨는 기요오카의 『아카시아의 대련』은 그 순수한 향수의 발로를 “식민지도시의 향수를 파렴치하게 구가한 작품이라는 비난을 가까스로 면했으며” 대부분 개관적으로 외적상황을 고려하려고 한 배려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²²⁾ 물론 이러한 경향은 기요오카 한사람만이 아니다. 만주체험을 지닌 많은 문학자들에게 볼 수 있는 점이다. 일본 제국주의 유산으로서의 도시건설, 그에 대한 향수라는 것은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사실 대련은 패전 후에 소련군에 의해 약탈과 강간당한 도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현대문학 속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낭만적인 생활을 보낸 도시로 회상하고 만다.

4. 만주국의 일본어교육

식민지 지배 국가가 식민지를 지배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긴 것이 언어교육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였다. 식민지 지역 일본어교육의 선구자 중 한사람으로 일본 문부쇼(文部省) 일본어 관계 관장을 지냈던 구기모토 히사하루(釘本久春)는 「이민족에 대한 일본어교육 내지 이민족사회에 대한 일본어 보급·침투 사업이라는 것은 일본의 대외 문화활동, 소위 문화공작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²³⁾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식민지 지배에 있어서 일본어교육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일본이 식민지 지배에 있어서 일본어교육을 실시한 것은 단순히 의사전달 수단으로서의 언어교육이 아니라, 소위 일본정신 내지는 황도정신(皇道精神)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던 것이다. 당시 일본의 식민지 교육 정책 중 가장 큰 특징이었던 <황민화교육(皇民化教育)>의 근간을 이룬 것이 바로 일본어교육이었다. 이것이 본고에서 일본어교육에 주목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20) 清岡卓行 『アカシア大連』(『昭和文學全集 30卷』小學館、1988) p.43~44

21) 川村湊 『「異郷」の昭和文学』岩波書店, 1990

22) 川村湊 『「異郷」の昭和文学』岩波書店, 1990, pp.80~81

23) 森田孝 「満州国の国語政策と日本語の地位」 『日本語』2卷5号、1942

아베 고보는 만주에 있는 초등학교 교육의 특수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내 경우는 교과서 체험이 특수하다고 할까. 즉 원형이 되는 풍경 자체가 한줄기 지평선만 보일 뿐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내지(內地)인 일본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그대로였다. 그 교과서에 나오는 풍경은 집이 있고 집 바로 뒤에는 산이 있거나 강이 있거나 했다.…… 콜짜기가 있고 시냇물 소리가 들리고, 거기에는 물고기가 살고 있다. 이 정도면 내지에 대해서 완전히 콤플렉스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 말 그대로 그것은 환타지였고 동경의 대상이었다. 창문을 열면 산이 보인다는 것은 마치 초콜렛 상자에 그려있는 그림과도 같은 거였다.²⁴⁾

아베 고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년도는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지만, 1936년 4월 12세때 봉천제2중학교에 입학한 기록은 남아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1930년 4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게다가 봉천 치요다초등학교 2학년 때에 아버지가 독일·헝가리로 유학을 떠났기 때문에, 훗카이도 히가시타카스(東鷹栖) 긴분초등학교(近文小學校)에 전학해서 1년동안 지냈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 다시 만주로 건너가 치요다초등학교에 복학을 했다. 그러므로 치요다초등학교에 복학한 해가 1933년경이라 생각한다. 1933년이라고 하면 이미 만주는 일본의 식민지 국가로 일본군의 통치 하에 있었을 때다. 일본은 만주국을 세워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일본어교육 정책에 힘을 기울였다.

당시 만주국에서는 한족(漢族), 만주족, 몽고족, 조선족 그리고 일본을 포함해서 5족이 민족구성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이 중 가장 큰 그룹이 일반적으로 일본인이 만인(滿人)이라고 불렀던 한족과 한족화 된 만주족이었다. 이러한 이민족 중심의 복합민족 국가에서 국가라는 관념을 침투시키는 것은 국가의 존속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였고, 그 국민에 대한 교육이야말로 중요한 수단이었을 것이다. 이에 일본은 오족협화(五族協和)를 내걸고 이상적인 복합국민국가를 만들기 위해 복수국어제도를 실시하였다. 당시 조선·대만 등지의 식민지에서는 일본어만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정책을 폈지만, 만주에서는 일본어를 국어로서 필수로 정하고 그밖의 언어교육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였다. 그러다가 일본어가 완전히 만주국의 국어로 정착하게 된 것은 1937년부터였다.²⁵⁾

특히 이러한 일본어 모국어 정책은 만주에 사는 주민들에게 소위 국가라는 개념을 심어주고, 나아가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는 의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함이었다. 만주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을 규정하는 헌법이라든가 하는 법이 확립되기도 전에 국가가 소멸되어 버렸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국민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였다. 게다가 만주국이라는 것이 인위적인 색채가 강한 국가였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일본군은 일본어 모국어 정책에 힘을 기울였다.²⁶⁾

그러므로 일본어 모국어 정책의 일환인 국어 교과서는 일본 본토에서 사용하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이에 아베 고보를 비롯하여 어린 시절을 만주에서 보낸 많은 작가들은 만주에서 익숙하지 않은 일본의 풍경을 그리면서 일본어를 배웠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아베 고보의 일본어 표현은 어딘가 번역어적인 느낌을 준다. 아마도 일본어가 모국어로서 자연스럽게 와 닿은 것이 아니라 타민족이 일본어를 배우 듯이 일본어를 습득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는 바이다.

24) 「錨なき方舟の時代」 『すばる』 1984년1월

25) 三谷裕美 「滿州國における『國語』政策」(東京女子大學紀要『論集』第46卷2號、1996年3月)

26) 磯田一雄 「皇民化教育と植民地の國史教科書」(大江志乃夫編『岩波講座 近代日本と植民地4—總合と支配の論理—』岩波書店、1991)

5. 결론—일본 전후문학에 있어서의 <만주>—

일본의 현대 젊은이들은 중국의 동북부 지역이라고 하는 옛 만주 지역을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 이전 일본이 만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했다고 하는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평균 이상의 교양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패전 후 일본인들이 의식적으로 만주국의 존재를 이야기하지 않았던 결과이기도 하다. 젊은이들에게 만주 지역은 몽고와 같이 먼 나라의 이미지로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지역에 향수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그곳에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일본 현대문학에서 옛 만주체험을 문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는 것은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려낸 향수문학이라는 관점이다. 여기에 만주체험의 가치고 두고 있다. 적어도 기요오카 다쿠유기가 1970년대에 들어와 만주체험을 그린 작품이 아쿠타가와상(芥川賞)을 수상하기 전까지는 만주는 역사 속에서 묻혀 그 누구도 이야기하려 들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²⁷⁾

1940년대 이후 즉 전쟁당시부터 출생한 세대들은 대부분 만주라고 하는 풍토는 그들 의식 속에 없었다. 이 세대들은 패전 후 아메리카의 점령에 의해 환태평양 문화권이라는 의식이 강했다. 그러므로 거리적으로도 먼 아메리카가 중국 동북부 지역에 있었던 옛 만주보다도 가까운 나라인 것이다.

일본이 어떠한 정의가 있다 하더라도 역사적 현실 앞에서 일본이 가해자라는 사실은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의 메이지(明治)시대 이후 패전에 이르기까지 긴 세월을 거쳐 만주체험을 생각할 때, 그것은 모두 중국인에게 있어서 민족을 굴욕의 세월이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시 만주국에 대한 환상은 일종의 열광처럼 전진된 것은 사실이다. 일본의 산업과 군벌 협동의 침략정책은 일반 일본 국민들의 갈망이었던 빈곤으로부터 탈출 심리를 이용하여 그것을 내셔널리즘 에너지로 형성해 갔다. 이것은 만주뿐만이 아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타이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관점 하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일본 현대문학에 나타난 만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본다.

첫째, 향수로서의 만주. 이는 기요오카의 문학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만주를 하나의 그리운 고향처럼 회상하고 있다. 아름다운 추억이 있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했던 잃어버린 대륙으로 말이다. 그래서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시(詩)를 비롯하여 소설이 나타났다. 이것은 만주 패전 이전부터 나타난 현상이며, 전후에는 1970년대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패전 후 일본인들의 마음 속에 20여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모든 것을 아름답게 포장하려는 생각에서였는지도 모른다.

둘째, 고향상실로서 부재의 토지 만주. 1945년 일본 패전과 더불어 만주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토지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역사적 현실 속에서 만주체험을 지닌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고향상실자라 하였으며, 이것은 더 발전하여 작품 속에서 일본을 없애버리기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 아베 고보의 작품을 보면 등장인물을 비롯하여 공간 설정에서도 일본적인 색채를 배제하였다. 이는 만주패전으로 인해 만주 소멸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국가나

27) 기요오카 다쿠유기와 같은 시기에 만주체험을 그린 작품으로 아쿠타가와상을 받은 작가로 미키 다쿠(三木卓)를 들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방울새』(鶯, 1972)가 있으며, 만주체험에 관한 연작 소설집으로 『포격 후에』(砲撃のあとで, 1973)가 있다.

사회가 개인에게 귀속을 강요하는 것이 얼마나 인위적이고 기만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아베 고보 문학은 일본문학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사소설의 전통을 단절시켰으며, 일본 현대문학 속에서 <보편문학>이라고 하는 영역을 만들어 냈다.

앞으로 일본 현대문학 속에 나타난 식민지체험을 만주체험 뿐만이 아니라 한국체험 또는 타이완체험을 고찰하여 이들 체험이 갖는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2000학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신진교수 연구과제 공모과제인 <현대 일본문학과 식민지체험>의 일부분으로 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참고문헌>

『安部公房全集』 第1卷～第29卷、新潮社、1997～2000

『昭和文学全集』 第30卷、31卷、小学館、1981

大久保典夫 「安部公房と敗戦体験」 (『国文学』 第17卷12号、1972、9)

小久保実 「主要モチーフからみた安部公房」 (『解釈と鑑賞』 445号、1971、1)

小久保実 「安部公房の満州体験」 (『解釈と鑑賞』 511号、1975、5)

川村湊 『戦後文学を問う』 岩波新書、1995

川村湊 『満州崩壊—「大東亜文学」と作家たち—』 文芸春秋、1997

川村湊 『文学から見る「満州」』 吉川弘文館、1998

栗坪良樹 「けものたちは故郷をめざす—<境界線上>の衝動—」 (佐々木基一編 『作家の世界 安部公房』 番町書房、1978)

安部公房/磯田光一 「安部公房氏に聞—人間・共同体・芸術—」 (『国文学』 第17卷2号、1972、9)

りーど英雄/島田雅彦 「幻郷の満州」 (『ユリイカ』 1994、8)

若槻泰雄 『戦後引揚げの記録』 時事通信社、1991

日本社会文学会編 『近代日本と<偽満州国>』 不二出版、1997

『大日本帝国の戦争1 満州国の幻影』 毎日新聞社、1999

빌 애쉬크로프트 외 지음, 이석호역 『포스트콜로니얼 문학이론』 민음사, 1996